

전남도, 신안 임자도서 '숲+더하기' 행사

홍매화 1400그루 등 2023년까지 1만5000그루 식재...탄소중립 실현·관광자원 기대

전남도가 지난 11일 신안 임자도 이혁암리 일원에서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숲+더하기'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는 홍매화 1400그루를 심었다. 이는 연간 25t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있고, 주변 홍매화숲과 함께 지역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임자도는 누구보다도 매화를 사랑했던 조선 후기 문인 화가 우봉 조희룡 선생의 유배지다.

도는 매화의 꽃향기를 담아내기 위해 섬 테마를 홍매화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매화 숲을 조성하고 있다. 2023년까지 1만5000그루의 홍매화를 심을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시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2260ha의 면적에 463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이는 연 1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규모다. /윤현석 기자 chadoll@

광주 금호1동 보장협의체 '건강 영양죽 배달서비스'



광주 서구 금호1동 보장협의체가 최근 돌봄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확인을 위해 '건강 영양죽 배달서비스'를 진행했다. (광주 서구 제공)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진도서 이불빨래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 적십자봉사원 20명, 직원 2명이 최근 진도군 조도면 어르신들을 위해 이불빨래 세탁 봉사를 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도농기원, 여성농업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전남도 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최근 농업기계 교육장에서 여성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작동 원리 및 조작 기술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가거도 헬기 사고 순직해경 7주기 추모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여수해양경찰교육원 중훈탑에서 2015년 구조 헬기 사고로 숨진 4명의 해경을 기리는 7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사진> 추모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해해경정 소속 경찰관과 유가족 등만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조 헬기를 타고 이동하다 바다로 추락해 순직한 해경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최승호·백동홍·박근수·장용훈 해양경찰관은 2015년 3월 13일 어린이 환자 이송을 위해 가거도로 가던 중 해상에서 헬기가 추락해 순직했다.

해경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순직 경찰관들을 위한 추모공간인 중훈탑을 마련해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

다. 중훈탑은 2014년 6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 현충 시설로 공식 지정됐으며, 순직 경찰관 185명의 위패가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허구연 야구해설위원 KBO 총재 후보 추대

허구연(71·사진) MBC 해설위원이 야구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 추대될 전망이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대표와 KBO 사무국은 지난 11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열린 제4차 이사회에서 총재 후보로 허구연 위원을 추천했다.

허구연 위원은 최고 의결 기구인 구단주 총회를 거쳐 제24대 총재로 선출될 예정이다.

허 위원은 총회에서 재직 회임 '3/4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KBO 총재직을 수행한다.

허구연 위원은 일생을 야구에 투신한 정통 야구인이다. 그는 프로야구 출범 전인 1970년대 실업팀 상업을 행, 한일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해설위원으로 변신했다.

허구연 위원은 고(故) 하일성 전 KBS 해설위원과 함께 야구 해설가로 쌍벽을 이루며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크레이지 러브	30 반짝이는 프리채널2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야생여정 플러스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디큐	00 KBS 뉴스타임 10 포브(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노래가 좋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로컬식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50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사랑의 패배기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백종원 클래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크레이지 러브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30 로컬식탁	00 새내이션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매거진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역사저널 그날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차종우돌 한국 유망기 떠나요! 차박 캠핑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6:25 위인극장(재)
05:5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06:1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07:00 뽀롱뽀롱 뽀로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7:15 우당탕탕 온한안전단	12:00 EBS 뉴스 12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7:30 엄마 까투리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7:45 출동! 슈퍼왕스(재)
07:45 띠띠뽀 띠띠뽀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8:00 생방송 뚱뚱지 해결단
08:00 딩동댕 유치원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5:05 EBS 다크프라임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8:35 출동! 슈퍼왕스	15:25 EBS 비즈니스 리뷰	19:30 한국의 들레길
08:50 위인극장	15:40 지식채널e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9:0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15:50 직업탐구 별일입니다2	20:40 세계테마기행
09:20 꼬마버스 타요	16:05 통통가족	21:30 한국기행
09:35 뽀로로와 노래해요	16:15 페파 피그	21:50 EBS 다크프라임
09:40 우리집 유치원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4일(음 2월 12일 丙寅) ☎ 010-9790-8237

子	36년생 상대의 태도에 좌우되지 말고 주체적으로 대응 하자. 48년생 사심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로 판단해야 한다. 60년생 기초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 작용하리라. 72년생 원칙과 예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책이 아쉽다. 84년생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함이 훨씬 나을 것이다. 96년생 기반을 이취하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31, 93	午	42년생 혼 동안 긴박한 정황이 계속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54년생 따르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6년생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가든지 반대이든 지 간에 매한 가지이리라. 78년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90년생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될 수 있다. 02년생 과도한 은 속히 청산하라. 행운의 숫자 : 23, 72
丑	37년생 번거롭더라도 막상해 놓고 보면 실리가 따를 것이다. 49년생 중요한 일을 다루게 될 것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61년생 궁극적으로는 해결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73년생 규모의 대소와 상관없이 중차대한 일이다. 85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남의 원성을 사게 된다. 97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9, 84	未	43년생 운기가 험하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5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67년생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고 중용의 도를 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9년생 표면을 불 품 없으나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91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겠다. 03년생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88
寅	38년생 평상시에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50년생 수상하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62년생 험등기는 하지만 거둬 주는 이도 있다. 74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86년생 안정세로 접어들겠다. 98년생 제대로 보여 줘라. 행운의 숫자 : 64, 77	申	44년생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해야 할 때다. 56년생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68년생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겠다. 80년생 지난날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92년생 궁극적으로 원했던 바를 이루면서 무한한 기쁨에 취하리라. 04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함이 성과를 배가시키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5, 55
卯	39년생 시기가 아니라 의지의 유무가 관건이다. 51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63년생 상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다. 75년생 느슨해진다면 곧 관하게 될 것이니 단단히 매어 두어야 한다. 87년생 국면을 확실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99년생 집착을 떨쳐 버려야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9, 73	酉	33년생 여건이 조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판교에 이른다. 45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끈속스럽게 할 수 있다. 57년생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남이 예상된다. 69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니라. 81년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93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분원이다. 행운의 숫자 : 16, 52
辰	40년생 불투명한 형국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52년생 제3의 요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64년생 앞뜰함 속에서 화목함이 싹트는 법이다. 76년생 여기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하라. 88년생 완급과 정도를 조절하라. 00년생 김씨가 보였을 때 즉 각 대처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4, 95	戌	34년생 느끼고 판단하다가는 실수 하리라. 46년생 성의를 다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58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70년생 내적인 면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할 때다. 82년생 지양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94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2, 71
巳	41년생 과정에 충실한다면 득이 따르리라. 53년생 제반사가 지연되고 결과도 늦추어질 수 있다. 65년생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볼 일이다. 77년생 잔술 밟아서 바늘을 찾고 있는 형국이니라. 89년생 피망 흘러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헛수고이다. 01년생 새로운 틀이 짜여지고 관계가 형성되리라. 행운의 숫자 : 21, 94	亥	35년생 준비해 왔던 것을 실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47년생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돌출하는 성향이 주의해야 한다. 59년생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71년생 성공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다. 83년생 종일 내리는 소나기는 없는 법이다. 95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89